

## Foreward

### 이 책을 읽는 분들께

아마 이 책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외국 잡지에 영어로 작성된 원고를 투고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도 잘 정리되지 않고 말도 잘 안되어 어렵게 글을 써서 출판사에 투고했지만 논문 투고가 너무 많아 게재 공간이 부족하여 게재가 어렵다는 정중한 편지를 받기도 하고, 아예 내용이 부실하고 영어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어 게재가 어렵다는 거절 편지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다. 논문을 투고해서 여러 번 거절 당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포기하여 영어로 해외잡지에 투고하는 것을 중단하기도 하고, 일부는 심한 비평을 가하는 경우도 더러 본다. 우리 글로 논문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학지식은 궁극적으로 다수가 공유해야 하고 세상이 다양한 수단으로 연결되는 것과 같이 이제는 인터넷이란 도구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거대한 지식망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나 발견을 남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정보를 전파, 공유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처음부터 명망이 있는 잡지에 논문이 수록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저자나 투고자는 인용빈도가 낮은 잡지에 투고하거나 증례 등을 투고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소위 말하는 좋은 잡지에 투고해 어렵게 심사와 교정을 거쳐 게재허가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잡지마다 각각 추구하는 영역이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원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어떤 잡지에 적절한지 찾아야 하고 그 잡지에서 요구하는 형식이나 요령에 맞게 투고해야 한다.

의학논문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자신이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 내용이 원저로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전제로 연구 방법이 윤리적이어야 하는 것은 부연하지 않겠다.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나 관찰 내용을 발견하거나 이미 잘 알려진 사실에 반대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기존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변수들을 조명한다면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많이 발표된 증례도 이전에 기술되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에서 기술한다면 증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연구 대상이 많다는 이유나 지역적 특성만을 강조한다면 처음 한 두 번은 게재가 가능할지 모르나 논문으로서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 잡지 방침에 따라서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아니더라도 게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저자 자신이 설정한 가설이 논리적이고 연구 배경이 관심을 끌 수 있으며 연구 방법에서 객관성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규명된 경우이다. 또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 없이도 게재되는 경우는 위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고찰 등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잘 분석하여 중요점을 강조하면 충분하다. 대부분 잡지가 상호심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편협한 심사위원이 아니라면 영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과학적 진실을 밝히려는 합리적인 내용 전개가 있다면 심사자 역시 좋은 지적을 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게재를 유도할 것이다. 즉 논문에서 중요한 것은 고유한 결과를 가지는 원저로서의 중요성과 저자가 처음 제시한 가설을 무리 없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기술일 것이다.

저자가 연구 내용을 잘 정리하고 결과를 정리하였으면 초록을 먼저 작성해 자신의 연구 내용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초록은 본문과 독립적, 즉 본문을 읽지 않더라도 초록만

보고서도 본문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심사자가 초록을 먼저보고 심사여부를 결정하고 일부에서 초록만 보고 인용하기 때문에 좋은 초록을 쓰는 것은 논문을 반 이상 작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음에는 초록 내용을 토대로 투고하고자 하는 잡지의 형식에 맞게 원고에 살을 첨가하며 기술한다.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좋은 외국 잡지에서 사용하는 논문의 구조와 방식, 흔히 사용하는 서술 요령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논문을 쓰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많은 논문을 읽으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논문을 비판적으로 읽고 판단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가 목표로 하는 잡지에 어떤 내용이 주로 실리는 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알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해외잡지에 투고하면서 사전에 영어교정을 해 온 경험이 많은 원어민 교정자가 관찰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가(addition) 모국어가 아닌 임상가, 연구자가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책에는 과학 논문을 쓰는데 필요한 기초 문법과 문장의 구조, 한국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문장 전개 오류나 꼭 알아야 하는 문장,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막연히 외국어로 논문을 쓰면서 생기는 불안감이 아마 이 책을 사전에 보면서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으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더 쉽게 영어 원고를 작성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소화기내과

한 동 수